



전주대 류한수 레슬링 코치, 대한체육회 선수위원 당선

전주대학교 류한수 레슬링 코치가 제42대 대한체육회 선수위원으로 당선됐다. 1일 전주대에 따르면 류 코치는 대한민국 레슬링을 대표한 국가대표 선수로,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 2회 우승과 아시안게임 2회 연속 금메달 등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후 올해 1월 전주대학교 레슬링 코치로 부임한 이후, 학생 선수들의 실력 향상과 레슬링부의 전국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대한체육회 선수위원은 선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올림픽 정신 확산, 선수 정책 자문 등 체육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류한수 코치는 앞으로 4년간 선수위원으로 활동하며, 레슬링 국가대표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육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류한수 코치는 "선수들의 목소리를 체육 정책에 반영해 선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등 대한민국 체육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평신협, 4년 연속 '온누리에 사랑' 캠페인

전평신협(이사장 김병학)은 송천1동 주민센터(동장 전지현)와 함께 전주시 덕진구 소재 전평신협 본점에서 '온누리에 사랑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온누리에 사랑을 캠페인은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위기가정 및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기획되었다. 1998년 신협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시작된 이 캠페인은, 2015년부터 임직원이 직접 위기가정을 발굴해 추천하면 재단이 후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협재단은 지난해까지 총 831가구에 약 25억 원을 후원하며 도움이 손길을 이어왔다. /오상근 기자



익산서 전북 4H 체육대회... 청년농업인 화합의 장

전북 지역 청년농업인들이 익산에 모여 화합과 교류를 하거나 되는 뜻깊은 체육대회를 펼친다.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4H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가 원광대학교 원체육관 등에서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도내 14개 시군 4H연합회 소속 청년농업인 150여 명이 참여한다. 체육대회는 4-H 이념인 '지(Head)·덕(Heart)·노(Hands)·체(Health)' 4개 팀으로 나뉘어 배드민턴, 족구, 계주 등 8개 종목에서 예선과 결승이 진행된다. 이튿날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교육이 진행되고, 종목별 시상식을 끝으로 대회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청년 농업인 간의 상호 정보 교류와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익산=이재춘 기자

남원 4H연합회, 전북 4H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남원시4H연합회(회장 관대경)는 1일부터 2일까지 원광대학교 원체육관에서 열리는 '2025 전북4H 한마음체육대회'에 참가해 정음·임실·고창과 함께 '덕(德)' 팀으로 구성되어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전북도 4H 도임원과 각 시군 대표 150명이 함께한 가운데, 지·덕·노·체 4H 이념을 바탕으로 회원 간 화합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남원시 4H연합회는 체육대회 배드민턴과 족구 등 8개 다양한 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팀워크와 열정을 발휘했으며, 화재예방 및 소방 안전교육, 시군 간 정보교류 프로그램에서도 주도적인 자세로 임해 타 시군의 모범이 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건설현장 최고 가치 '무사고 무재해' 실현

포스코 이앤씨, 전주 감나무골·기자촌 건설현장서 노동자들 안전에 심혈 기울여

국내 건설사들이 안전을 화두로 삼고 있는 가운데 도내 전주 감나무골과 기자촌을 비롯한 대규모 아파트 시공업체인 포스코이앤씨가 안전사고 방지를 비롯한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로 7월 현재까지 무사고, 무재해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공사시작전인 오전 조사회부터 현장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 및 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건설현장 주요 곳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사고로부터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1일 포스코이앤씨 서부건설단장으로 호남권 아파트 및 건설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김명준 상무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모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포스코이앤씨는 서부사업단 현장에서 선진형 스마트 S+워크시스템을 새로이 적용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페이퍼리스의 스마트 자동운영 관리로 건설현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처럼 포스코이앤씨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사고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장애물과 문제점들을 제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나 익산 국토관리청, 전북도, 전



감나무골 다실 빌딩 야경 투시도



기자촌 아파트 조감도

주시, 전주지방노동지청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대응 및 협조체계를 마련해 시행하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건설현장에서는 각종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음주측정 및 열악관리 등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한 상태에서 근로에 총출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022년 정부로부터 안전관리 수준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포스코이앤씨를 발주청, 시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까지 포함된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 248곳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매우 우수'라는 평가를 내렸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해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전담조직 구성 등 259개 세부지표를 활용해 매우 우수(95점 이상), 우수(85점~95점), 보통(60점~85점), 미흡(40점~60점), 매우 미흡(40점 미만)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 서부사업단 김명준 상무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모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대 간호대 대학원생, 발전기금 4600만원 기부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생 41명이 후배들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총 4,600만 원을 기부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병원이나 보건기관에서 근무하며 학업을 병행하는 복직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후배들을 위한 마음만큼은 더없이 단단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전통은 어느덧 10년째다. 누적 기부 금액도 5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간호대 대학원생들의 소중한 뜻을 기리기 위해 전북대학교 발전지원재단은 지난 6월 30일 총장실에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대학 천현선 박사과정 대표와 김준혁 석사과정 대표가 대학원생들을 대표해 감사패를 받았다. 천현선 박사과정 대표는 "선배님들께 받은 따뜻함을 후배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간호대학만의 전통"이라며 "후배들도 언젠가 또 다른 후배들에게 이 따뜻한 마음을 전할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준혁 석사과정 대표는 "우리가 받은 응원은 단지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공부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든든한 울타리"라며 "앞으로도 간호대학이 서로를 북돋우며 성장하는 공동체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무주종합복지관, 개관20주년 기념 '오픈하우스' 개최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종용)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1일, 무주 시장 일원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행사 '오픈하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와 직접 공유하고, 지역주민이 복지관의 역할과 정체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특히 복지관 내부가 아닌 무주반딧불시장에서 진행되어 더 많은 주민들과 소통하여 복지관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었다. 행사 당일에는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의 사업인 △장애인노인인식개선 △뷰티교실 △(장애인)자기표현 및 정서건강인식 △서에수목화교실 △노년자일일봉사활동지원사업의 부스가 운영되어 시장을 방문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지역주민 이모(54, 무주읍)씨는 "복지관은 어르신들만 간다는 오해가 풀리는 행사였다. 오픈하우스 부스를 통해 평



소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도 얻을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하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농협, '2025년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성료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은 지난달 30일 오후 1시 30분 김제농협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여성조합원 14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김제농협 이동상담실'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이동상담실은 농협중앙회의 지역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실시, 여성 조합원들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지원, 법률적 권익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한 생활법률 교육을 통해 농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의 사례와 해결 방법을 소개했고, 특히 재산권과 상속, 계약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다뤄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주)문화안전교육센터에서 진행한 농업인 안전관리 교육에서는 농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법과 함께 긴급상황 발생 시 꼭 필요한 심폐소생술 실습도 병행하여 참가



자들이 위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김제=곽도태 기자

이성호 신임 남원시 부시장 취임

남원시는 이성호 남원시 부시장이 지난 7월 1일자로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1968년 전북 완주 출생으로, 전주 완산고등학교, 한국고원대학교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공직에 입문해 전북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과장, 에너지수소산업과장, 정책기획관,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등 다양한 보직을 거친 행정 전문가로, 탁월한 업무 추진력과 기획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부시장은 취임 첫날 남원 소통혁신의 날에서 "민선 8기 후반부는 시민이 체감하는 소통 중심의 행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터 따뜻한 복지, 미래성장동력 확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남원시의 도약을 목표로 민선8기의 큰 그림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남원시가 문화와 미래 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1,500여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성호 부시장



전주대, 고려병원서 발전기금 1000만원 기탁받아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1일 전주고려병원(이사장 김수옥)으로부터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전주대학교 발전기금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수옥 이사장은 지난해에 1,000만원을 기탁한 데 이어 올해도 대학 발전기금을 기탁하며 대학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 이사장은 지난 6월 전주도백로타리클럽 회장으로 취임, 나눔과 상생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김수옥 이사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전주대학교의 발전과 성장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학생들의 성장과 대학의 밝은 미래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진배 총장은 "소중한 발전기금을 기탁해 준 김수옥 이사장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고려병원은 1994년 개원해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병원으로,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를 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소상공인연합회, 도통동에 선물세트 전달

남원시 도통동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강상남)에서 지난달 30일,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선물세트 15개(30만원 상당)를 지원해 1일 1가구 소통행정으로 발굴한 지역 내 15가구에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남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풍년갈국수와 함께 도통동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매일 20명씩 식사를 지원하기도 했다. 강상남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가족센터, 초등생 스포츠리듬트레이닝 교육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군가족센터(센터장 정성철)가 6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무주군 내 10~13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울림 스포츠리듬트레이닝'을 운영한다. 어울림 스포츠리듬트레이닝은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림으로써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어울림문화교육지원사업 중 하나이다. 올해 어울림 스포츠리듬트레이닝은 무주군 내 10~13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어울림 스포츠리듬트레이닝은 음악과 함께하는 체육활동으로, 참여 아동들이 리듬에 맞춰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연스럽게 협동심과 집중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다. /무주=전문선 기자